

2015 7. 26 연중 제 17 주일

제 1 독서 : 열왕기 하 4,42-44 < 먹고도 남을 것이다. >

제 2 독서 : 에 페 소 4,1-6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

복 음 : 요 한 6,1-15 <예수님께서서는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제 1 독서의 엘리사예언자와 복음 말씀의 예수님께서서 이루신 기적은 서로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리빵 20 개로 백명을 먹인 기적과 보리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은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요한 복음서를 계속 읽다보면 바로 성체에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않는 한

결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이런 기적이 안 일어 날까요?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가 힘이들지요. 하느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한가지 예를 든다면 마더데레사가 어떤 분이신지? 그 분은 일전 한푼 없이 그 안에서 수천명을 먹여 살려냈고, 또한 행려병자들의 죽음을 인간답게 준비하여 주었고, 또한 그분의 제자들이 지금도 그일을 계속 하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꽃동네도 마찬가지이지요, 한 불품없는 거지 한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공동체가 이제는 수천명이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보리빵 20 개를 가진 사람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내어 놓았을때에 백명이 충분히 먹을수 있었던 것과 같이, 또한 보리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 놓음으로써 오천명이 먹고도 열두광주리나 남는 기적을 이루어 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우리 사회안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각자가 갖고 있는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나만 잘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물질주의와 이기적인 사고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해 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상 인간은 많은 좋은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봉건주의때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만들어 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는 사실 나쁜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함께 일해서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초기 공동체의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같이 열심히 일해서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또 누가 많이 가져서 누구를 낮게 볼수도 없고, 누가 적게 가져서 주눅이 들지도 않는 바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생각대로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공산주의의 독재자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실상 공산주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독재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일을 안한 사람도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무엇때문에 뼈빠지게 일을 해!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하였던 사람들까지도 그냥 건성으로 일을 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착취가 일어나게 된것이지요. 모든 구성원들이 그 생각대로 열심히 따라가면 사실은 공산주의는 무너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낸 것이 무엇이나? 하면 자본주의입니다. 그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건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 만큼 그 보수가 주어지도록 만들어진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시간에 백만불을 받고, 어떤사람은 한시간에 겨우 7불 오십, 8불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영주권이 없으면 십장들이 그돈의 일부를 빼앗아 가집니다. 그래서 신 노예주의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돈이 많은 나라가 더욱더 돈을 많이 벌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나라들, 즉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병합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정부가 청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회 체제이건 간에, 어떤 생각을 가졌던 간에 그 윗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이 청렴하게 살지 않는다면 올바른 사회가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매번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 안하고, 사회씨스템이 어떻고, 저사람, 이사람이 어떻고 하면서 책임회피를 할 때에 사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자꾸만

심화되는것 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 매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자신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진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이 느낌만가지고 살게 되며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 독서와 2 독서의 주된 개념은 우리가 가진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것을 나누어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굶주림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굶주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굶주림에서도 벗어 날수 가 있을것입니다. 오늘 제 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도께서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을 할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닮아 거룩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시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라져 있을까?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것입니다. 2000 년동안 사도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우리 천주교회를 살펴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 하느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자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되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이 공동체를 갈라지게 할것 같으면 그것을 자기 안으로 겸손하게 품어 들일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자신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진것을 진정 하느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인가? 또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좋은 의견도 공동체의 분리가 되는 원인이 된다면 안으로 거두어 들일줄 알며, 내가 죽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 미사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자신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기도

아버지,
파스카를 경축하는 이 주일에
저희를 부르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주시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빵을 나누며,
영혼과 육신의 온갖 굶주림을
채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 1 독서

<먹고도 남을 것이다.>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4,42-44

그 무렵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 빵 스무 개와 햇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5(144),10-11.15-16.17-18(◎ 16 참조)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제 2 독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1-6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복음

<예수님께서서는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15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 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